

## 1. 4형식 문장

- 1) 4형식 문장은 「주어 + 동사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로 구성되며, ~에게 ~를 해주다/알려주다/빌려주다/말해주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수여동사'와 함께 쓰인다.
- 2) 이 수여동사 뒤에는 '~에게'에 해당하는 '간접목적어'와 '~을/를'에 해당하는 '직접목적어'가 온다.  
ex) I gave him a book에서 give가 수여동사, him이 간접목적어, a book이 직접목적어가 되는 것이다.

##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Volunteering abroad **taught me so much** about the world and about myself.

✓ 수여동사 teach(taught)의 간접목적어로 me, 직접목적어로 so much가 왔고, about 뒤는 so much를 수식한다.

<해석> 해외 자원봉사는 나에게 세계와 나 자신에 대해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 2. 목적격관계대명사의 생략

- 1) 관계대명사가 관계절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할 때 이를 '목적격관계대명사'라고 한다.  
ex) She is the girl **whom** I met this morning  
→ 선행사 the girl을 의미하는 관계대명사 whom은 관계절에서 met의 목적어이다.
- 2) 목적격 관계대명사(which/that/whom)는 생략이 가능하다.
- 3) 목적격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ex) This is the room **which** he lives **in**. (생략가능)  
↔ This is the room **in which** he lives. (생략불가능)

##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It is **something (that/which)** I try to do every day.

✓ something과 I 사이에 목적격관계대명사 that/which가 생략되었다.

<해석> 그것은 내가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 3. 혼합가정법

- 1) 가정법은 if절과 주절의 시제에 따라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미래에 대한 가정 등 여러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거에 ~했더라면 현재에 ~할 텐데.”, “~하다면 ~할 것이다”와 같이 시제가 섞인 형태를 표현하는 가정법을 ‘혼합가정법’이라고 한다.
- 2) 그 중에서도 과거의 행동에 대한 현재의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If + 주어 + had p.p(과거완료) ~ , 주어 + would/could/might(과거) + 동사원형」의 구조를 가진다.

##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Sometimes I wonder what my life would be like **if I had not got on that plane to East Africa.**

✓ 조건절에 가정법 과거완료 if + 주어(I) + had not p.p가 쓰였고, 결과절에는 주어(my life) + would + 동사원형(be)가 쓰여서, “과거에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삶이 어떨지”라는 의미를 준다.

<해석> 가끔 나는 내가 동아프리카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궁금해한다.

## 미리보는 빈출문장

★ 1) I'd never traveled 2) anywhere so different before, and I had no idea 3) what to expect.

## 1) 과거완료 had p.p

회상을 하고 있는 과거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여행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므로, 한 시제 더 앞선 과거완료를 사용한다.  
해당 문장은 경험용법으로 특정 경험에 대해 '한 적이 있다' 또는 '한 적이 없다'를 표현할 때 쓰인다.

## 2) 형용사의 뒤에서 수식을 받는 대명사

something, someone, anything, anyone, somewhere, anywhere 등과 같은 대명사는 예외로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여기서는 anywhere different, '어딘가 다른 곳'이라는 의미에 강조를 위해 부사 so가 삽입되어, '어딘가 그렇게 다른 곳'을 표현했다.

## 3) 의문사 + to부정사의 간접의문문

문장 안에서 '얼마나/무엇/왜/ 언제/어디서/어떻게 ~한지' 등의 표현을 위해 삽입된 간접 의문문이 이다.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이다.

주어가 이미 언급된 경우 주어를 생략하고 '의문사 + to부정사'(what + to expect)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원형'과 같은 의미이다. (what I should expect)

<해석> 나는 그렇게 다른 곳은 여행해 본 적이 없었고, 나는 뭘 기대해야 할지도 몰랐다.

★ 1) If I had not volunteered, I would never have got an inside look 2) at their way of life.

## 1) 가정법 과거완료

가정법 과거완료는 이미 발생한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표현으로,  
'If + 주어 + had p.p ~, 주어 + 조동사의 과거(would/could/might) + have p.p ~'의 형태를 따른다.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의미이며, 여기서는 '자원 봉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면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 쓰였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바꾸자면 "As I volunteered, I got an insider look at their way of life"라고 쓸 수 있다.

## 2) 전치사 at

전치사 at은 시간이나 장소, 방향 등을 가리키는 의미로 다양하게 활용되며, '~에서, ~에, ~를 향해, ~을 보고' 등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는 got an insider look at their way of life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라고 방향을 가리키도록 사용되었다.

<해석> 내가 자원 봉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없었을 것이다.

★ - eye-opening 1) to see 2) how few possessions they had, yet how 3) much love and personal strength they had

## 1)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을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목적'의 용법 이외에도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to see ~의 to 부정사가 는 'eye-opening'이라는 감정의 원인이 되었다.

## 2) 간접의문문

"그들이 얼마나 적은 소유물을 가졌는지"를 간접의문문을 통해 명사절로 썼다. (see의 목적어 역할)  
'how few possessions they had'와 'how much love and personal strength they had'가 병렬적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how few, how much는 '의문사 +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얼마나 적게', '얼마나 많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3) few와 much

how 뒤에 사용된 '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수식하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를, 셀 수 없는 명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possession은 '소유물'이므로 '수가 적다'는 의미의 'few'를 사용하고, '사랑과 강인함'은 셀 수 없으므로 'much'를 사용한다.

<해석> 그들이 얼마나 적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에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개인적인 강인함이 있는지 보게 되어 놀라웠다.

## 미리보는 빈출문장

★ Volunteering 1)gave me deep gratitude for the 2)comforts and opportunities (which/that) I 3)used to take for granted.

## 1) 4형식 문장

주어 + 동사(gave) + 간접목적어(me) + 직접목적어(deep gratitude)가 사용되었다.

이는 주어 + 동사 + 직접목적어 + 전치사 + 간접목적어. 와 같이 쓰일 수 있다.

= Volunteering gave deep gratitude to me.

## 2) 목적격관계대명사의 생략

목적격관계대명사 which/that이 comforts and opportunities와 I 사이에 생략되었다.

생략된 목적격관계대명사는 앞선 선행사 'comforts and opportunities'를 받는다.

## 3) used to

~하곤 했다

<해석> 자원 봉사는 내가 그동안 당연시하곤 했던 안락함과 기회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해 주었다.

★ I knew I 1)wanted to continue 2)exploring, meeting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trying new foods, and discovering unique landscapes. It 3)made me a travel addict.

## 1)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사 want는 to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반면, continue는 to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 2) continue의 목적어인 동명사의 병렬적 연결

continue의 목적어인 exploring, meeting, trying, discovering이 병렬적으로 연결되었다.

같은 역할을 하며 병렬되는 요소는 같은 행태를 갖는다.

이 문장에선 continu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exploring, meeting, trying, discovering 이 같은 동명사의 형태를 취하였다.

## 3) 5형식 문장

사역동사 make가 사용되어 「사역동사 + 목적어 + 목적보어」 형태인 것을 5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주로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도록/되도록 만든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사역동사(make) + 목적어(me) + 목적보어(a travel addict)의 구조로 사용되었다.

<해석> 나는 내가 계속해서 탐험하고,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음식들을 시도하고, 독특한 풍경을 발견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내가 여행 중독자가 되게 만들었다.

★ Sometimes I wonder 1)what my life would be like 2)if I had not got on that plane to East Africa.

## 1) 간접의문문

what이하는 의문사 + 주어 (my life) + 동사 (would be like~)으로 이루어진 의문사절로, wonder의 목적으로 쓰였다.

## 2) 혼합가정법

가정법 과거완료 if + 주어(I) + had not p.p(과거완료), 주어(my life) + would + 동사원형(be)(과거)

“과거에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삶이 어떨지”라는 의미를 준다.

<해석> 가끔 나는 내가 동아프리카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지금) 어땠을까 궁금해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8년 04월 11일

2) 제작자 : 교육지대(주)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